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저수지 비상대처훈련

성낙성 기자 jeb08585@ksmnews.co.kr 입력 | 수정 2025.05.12 19:45



↑↑ 농어촌공사 성주지사서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다.사진/농어촌공사 성주지사제공

경상매일신문=성낙성기자]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12일 봉학저수지(벽진면)와 인촌저수지(월항면)에서 ‘2025년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’을 실시했다.

이날, 성주지사 전직원은 집중호우와 태풍, 지진 등의 재난으로 저수지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상황을 가정한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.

훈련은 상황에 따른 단계별 상황 보고 및 전파, 긴급복구, 저수지 하류 주민 대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. 긴급복구 동원업체를 동원하여 긴급복구 작업을 실시하고, 싸이펀을 작동시켜 저수지 붕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인명·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.

이돈문 지사장은 “이번 훈련을 계기로 지사 전직원들이 집중호우, 태풍, 지진 등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했다.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선제적 대처를 하겠다”라고 말했다.